

추천 일정: 시카고와 어퍼 미드웨스트

중서부 문화와 정신의 중심지인 일리노이 주 시카고는 중서부 여행의 기점으로 완벽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여러 매력을 음미해 본 후에는 유명한 66번 국도를 따라 내려가면서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의 자동차 경주를 보고,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역사와 레코드 제작사인 모타운의 음악에 대해 알아보세요. 미시간 주의 환상적 자연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추천: 4일

밀레니엄 공원(Millennium Park)에 있는 ‘콩’이라는 애칭으로도 유명한 조각 작품인 클라우드 게이트(Cloud Gate), 윌리스 타워(Willis Tower) 103층의 돌출된 유리 난간인 스카이 레지(Sky Ledge), 네이비 피어(Navy Pier)에 새로 생긴 센테니얼 대관람차(Ferris Wheel) 등 시카고의 대표 명소들을 방문해 보세요. 필드 자연사 박물관(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셰드 수족관(Shedd Aquarium),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등 교육적인 인터랙티브 박물관도 많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시카고 블루스 축제나 버디 가이스 레전드(Buddy Guy’s Legends) 같은 클럽에서 음악을 즐겨 보세요. 지노스 이스트(Gino’s East)나 루 말나티스(Lou Malnati’s)에서 두툼한 시카고 스타일의 딥 디시 피자를 맛보는 즐거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미로 알려진 시카고 핫도그는 시내 전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인기 높은 수제 맥주의 세계를 투어로 알아보고하프 에이커(Half Acre) 같은 인근 양조장에서 목도 축여보세요.

일리노이 주의 유서 깊은 66번 국도

추천: 3일

시카고에서 유서 깊은 66번 국도(Route 66)를 타고 진짜 미국을 만나러 가볼까요? 일리노이 주 482km에 걸쳐 시카고와 L.A.를 잇는 유명한 66번 국도 주변에서는 편안한 카페, 개성 넘치는 상점, 독특한 건축물과 예술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링컨에 우뚝 솟아 있는 대형 레일스플리터 커버드 왜건(Railsplitter Covered Wagon)이나

리빙스턴 (Livingston)의 핑크 엘리펀트 앤티크 몰 (Pink Elephant Antique Mall) 근처 대형 분홍 돼지 앞에서 기념 촬영도 해보세요. 일리노이 주 폰티악에 있는 66번 국도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 (Route 66 Association Hall of Fame & Museum)에서 66번 국도 기념품도 구경해 보세요. 남쪽으로 2시간 가량을 달려 스프링필드에 도착하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Abraham Lincoln Presidential Library Museum), 구일리오이주의회 의사당 (Old State Capitol)과 링컨 자택 (Lincoln Home)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Abraham Lincoln)의 생애를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에서 약 30분 거리의 지라드에 있는 독스 소다 파운틴 (Doc's Soda Fountain)에서 초대형 바나나 스플리트도 꼭 맛보세요.

인디애나 주

추천: 2일

인디애나폴리스 500 (Indianapolis 500) 경주가 열리는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Indianapolis Motor Speedway)는 ‘세계의 레이싱 수도’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레이싱 관련 기념품과 자동차를 볼 수 있는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 박물관 (Indianapolis Motor Speedway Museum)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피드웨이 버스를 타고 타원형 트랙을 돌아보는 등 스피드웨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북쪽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사우스벤드로 가서 노트데임 대학교 (University of Notre Dame)의 웅장한 캠퍼스를 여유롭게 돌아보세요. 1842년에 설립된 가톨릭계 대학교로 고딕 양식의 건축물 그리고 본관 건물 위로 높이 솟은 황금빛 돔과 성모 마리아상이 유명합니다.

오하이오 주 3대 도시 투어

추천: 3일

오하이오 주의 3대 도시를 둘러보세요. 북쪽 클리블랜드에서 출발해 로큰롤 명예의 전당 (Rock and Roll Hall of Fame and Museum)에 방문하여 초기 록 기념품부터 밴드 칩 트릭 (Cheap Trick)의 기타리스트 릭 닐슨 (Rick Nielsen)이 사용한 넥이 5개인 기타와 같은 최근 전시품도 구경해 보세요. 오하이오 주 중부에 있는 주도 콜럼버스에서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콜럼버스 미술관 (Columbus Museum of Art)이나 노스 하이 브루잉 (North High Brewing), 세븐스 손 브루잉 컴퍼니 (Seventh Son Brewing Co.), 울프스 리지 브루잉 (Wolf's Ridge Brewing)과 같은 양조장을 꼭 찾아보세요. 남서쪽

신시내티에 가면 신시내티 동물원 (Cincinnati Zoo) 투어를 마친 후 꼭 드셔야 할 명물이 있는데, 바로 치즈를 듬뿍 얹고 시나몬으로 맛을 낸 신시내티 칠리입니다.

미시간 주

추천: 4일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애착이 시작된 곳인 디트로이트 도심에서 여행을 시작해 보세요. 헨리 포드 박물관 (Henry Ford Museum)의 풍부한 체험형 전시관에서는 자동차의 진화를 더듬어볼 수 있습니다. 인근 디어본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자동차 조립 라인을 볼 수 있는 포드 루주 공장 투어 (Ford Rouge Factory Tour)도 해보세요. 또 근처 디트로이트의 모타운 박물관 (Motown Museum)에서는 독특한 미국 음악 장르의 역사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1959년 모타운 레코드사가 설립될 당시 본사 건물인 히츠빌 USA에 자리해 있습니다. 이제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미시간 주의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엠파이어의 슬리핑 베어 둔스 국립호안 (Sleeping Bear Dunes National Lakeshore)을 찾아 모래 해변과 험준한 절벽을 하이킹해 보세요. 아니면 북쪽으로 5시간 가량 달려 보트 투어로 픽처드 록스 국립호안 (Pictured Rocks National Lakeshore)의 높은 사암 절벽을 구경해 보셔도 좋습니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는 GoUSA.or.kr 및 thebrandusa.com/USAtripkit을 방문하세요.